

* 담당부서 정보통신진흥국

* 담당자 송경희 0-1351 (skh23@mic.go.kr)

위치

HOME > 알림넷 > 보도 및 언론해명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학회 주최 초찬 간담회에 참석, “현재 분산돼 있는 교통정보 DB 구조를 반영한 가장 효과적인 통합 DB 아키텍처를 설계해 ITS를 위한 통신망이 최적으로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ITS학회가 요청한 정보이용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위치정보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ITS 학회가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와 연계한 ITS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 장관을 초청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ITS 학회 임원, 관련업계 등 30여개 기업 및 기관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ITS 학회는 이 자리서 정통부가 범부처적인 과제로서 ITS 인프라 확대, 통합DB 구축, 표준화 등에서 건교부·경찰청 등과 협력 해줄 것과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ITS 분야와도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도 이에 대해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국민총생산(GDP)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9.5%대인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ITS 인프라와 텔레매틱스 연계를 통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국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